

우리나라 經營學教育的 目標와 教科課程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Objectives and Curricula of Korean Management Education—

黃 一 清 **

◀目	次▶
I. 머리말	3. 組織·人事分野
II. 우리나라 經營教育的 目標와 教科課程	4. 生産管理 分野
1. 經營教育 目標의 設定	5. 마아케팅 分野
2. 目標別 經營學教科課程의 模型	6. 國際經營學 分野
3. 提案된 教科課程模型의 前提	7. 計量經營學 分野
III. 專攻別 教科目과 授業方針	8. 電算應用經營管理 分野
1. 會計學 分野	IV. 建 議
2. 財務管理 分野	

I. 머 리 말

우리나라의 급속한 産業發展에 따라 增加되는 管理人力의 수요를 充足하기 위하여 1981學
年從부터 大幅的인 大學入學定員의 增大를 보았는 바 本研究는 그 중에서 經營學系列의 教
育現況을 分析, 當面한 經營教育的 문제점을 파악 經營教育에 대한 文教當局의 方向設定에 參

* 이 論文은 文教部의 財政支援를 받아서 이루어진 「經營學分野教育課程과 教授要目的 開發」

(亞洲大學校附設綜合研究所, 1981. 6.) 이란 報告書를 基礎로 1982 年 春季發表會에서 同
研究參加者들이 發表한 것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 亞洲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2 經營學研究

고자료로 利用되게 할 目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本研究는 經營教育을 擔當한 各大學 經營教育의 質的向上을 도모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企圖된 것이다. ¹⁾

이 研究는 元來 5個大學에서 7名의 經營學教授가 참가해서 추진된 것으로 그 內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²⁾

- ① 우리나라 經營系 學生數, 教授現況, 教科目 등 經營教育의 現況分析
- ② 外國의 것과 比較하기 위한 美國과 日本의 經營教育現況의 分析
- ③ 우리 大學에서 追求할 經營教育 目標의 設定 (學校別 目標의 設定)
- ④ 教育目標別 教科課程 模型의 提示
- ⑤ 專攻分野別 教科課程 模型의 提示
- ⑥ 各模型에서 提示된 各科目別 教授要目的 作成 提示

이 研究중에서 經營教育改善에 直接참고가 될 것으로 믿어지는 部分의 前掲 內容中 ③ ④ 및 ⑤ 번만을 요약해서 報告하기로 한다.

II. 우리나라 經營教育의 目標와 教科課程

1. 經營教育 目標의 設定

이제껏 우리나라의 經營教育의 量的成長을 보진대 여러가지 피치못함 이유들이 있어 質的 教育이 소홀히 되어왔음을 보는바 이는 우리가 뚜렷한 教育目標를 定立치 않은채 지내온 탓

1) 本研究는 文教部의 財政支援으로 遂行된 것이다.

2) 本研究는 다음 教授陣에 의해 遂行되었다.

研究擔當者	所屬	研究分野
黃一淸 (研究責任者)	亞 洲 大	總括·經營一般·마케팅
郭秀一 (研究幹事)	서 울 大	生産管理
宋 梓	延 世 大	會計學
池 淸	高 麗 大	財務管理
慎侑根	서 울 大	人事 및 組織管理
姜金植	亞 洲 大	計量 및 電算應用管理
池龍熙	西 江 大	國際經營

3) 韓國經營教育委員會刊, 「經營學教育의 評價 및 發展研究」, 第2章 參照.

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目標은 實事 實의 教育에 주어졌었다 해도 이를 實踐에 옮길 意志가 약하고 現實의 어려움에 부딪쳐 目標이 밀려나간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經營教育委員會의 研究報告書³⁾에도 지적되고 있는 바이나 우리 教育의 目標로서 내세워질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經營教育目標을 企業에서 必要로하는 將次의 高位管理者(專門經營者)를 養成하는 즉, 專門經營자가 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要求되고 있는 管理一般에 관하여 廣範한 基礎 教育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美國에서는 有數한 經營大學院課程에서 一般的으로 成就하고자 하는 것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둘째는 經營教育을 企業의 特定專門管理分野(會計, 財務, 販賣 등)의 專門家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專門分野에 관한 知識과 素養을 體得케 하는 目標을 成就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美國같은 곳에서는 數千名の 經營學專攻學部學生들을 거느리고 있는 州立大學이 지니고 있는 教育目標에 가까운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첫째의 目標은 全般管理者를 輩出하는 것으로 이들이 將次 高位管理者層에 서게 될 때 要求되는 洞察力과 分析力 그리고 判斷力을 培養하는데 注力을 둔 教育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 個人이 學校를 卒業하고 곧 高位管理者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下位管理者로서 必要한 知識과 素養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經營教育은 卒業後에 써먹을 수 있는 知識의 傳達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將來에 더욱 必要하게 될 素養을 즉, 洞察力과 分析力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 내세워진다.

따라서 이 目標에 숨뒀고 있는 바는 經營教育이 特定事業(業種으로 보아) 分野에 대한 知識이나 素養을 강조치 않으며 오히려 管理一般에 관한 分析的 手段을 익히게 하고 問題解決能力을 培養·洞察力을 기르는 데 注力하게 된다 하겠다.

이에 反하여 둘째의 目標은 大學에서 特定分野의 專門家の素養, 예를 들어 會計專門家, 貿易業 從事者, 保險業 從事者등을 養成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特定分野에 대한 專門的 知識을 갖고 그 分野에서 平生을 바치는데 必要한 素養을 大學에서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目標은 첫째 것보다 限定된 分野에서 보다 깊이 있는 專門的 素養을 지니게 하려는 것이다.

3) 韓國經營教育委員會刊, 「經營學教育의 評價 및 發展研究」, 第2章 參照.

4 經營學研究

오늘날 산업의 發展은 專門的 知識의 範圍를 크게 넓혔으며 새로운 知識과 素養의 必要가 企業의 專門分野에서 더욱 增大되어야 한다는 必要性 역시 增大되고 있음에 따른 現實的 必要를 反映한 教育目標의 設定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企業들의 大學卒業生에 대한 수요가 將次的 專門經營者들을 長期的으로 育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없지는 않을 것이나 많은 경우 이들이 지닌 專門的 知識과 素養을 活用하고자 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본다.

이러한 焦點을 달리하는 두가지 教育목표는 一見 우리 大學에서의 編制方式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나 사실은 學科의 設치가 그러한 目標을 뚜렷이 내세우고 이에 따라 教育計劃을 立案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껏 經營學科에 志願하는 學生들 自體가 뚜렷한 目的意識을 지닌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아울러 생각할 때 우리 大學에서 經營教育 目標의 設定은 이제부터 各大學에 부과된 과제라 보는 바이다.

더우기 이러한 目標設定은 各大學이 처해있는 立場 즉, 教授陣의 特性과 구성, 學校의 特異性和 方針, 그리고 學生들의 質的水準과 意向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各大學이 自己科의 教育目標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수준에 맞도록 定하는 한편 學生들의 將來方向을 감안해서 分明히 설정될 것이 이제부터 기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本研究陣은 앞에서 내세워진 두가지 目標를 놓고 어느 것을 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논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두가지중 어느 쪽에 기울어진 目標를 택할 것인가, (혹은 그외의 제 3의 目標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중 어느 것을 왜 택하느냐 함을 各大學이 정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해짐으로써 各大學에서 經營學科教科課程의 方向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 科를 責任진 科長이나 大學의 行政을 맡고 있는 사람의 立場에서 이 目標가 教育內容, 方向設定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目標別 經營學教科課程의 模型

이러한 觀點에서 本研究陣은 以上の 두 目標를 놓고 다음 <表 2-1>과 같은 大體的 教科課程 編成指針을 제안해 보기로 하였다.

이 表에 나타난 바를 보충해서 설명하면 一般經營者 育成目標에 따른 課程(以下 “A” 型이라 하겠음)에서는 大學에서 요구하는 全校 共通必須 과목이외의 專攻 및 選擇의 比重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① 教養 系列基礎科目, (19~30學點 정도) ② 共通專攻必須

科目 (10 과목 30 學點 정도) ③ 專攻 및 一般選擇科目 (10 과목 30 學點 정도) 으로 나누어 配定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에 反하여 專門(實務)管理者 育成目標에 따른 課程 (以下 “ B ” 型이라 하겠음) 은 이를 다시 둘로 나누어 하나는 經營機能別 (“ B - 1 ” 型) 과 産業別 管理者育成目標 (“ B - 2 ” 型) 로 나누어 보았다.

“ B ” 型에서도 1 과 2 型에서 다같이 系列基礎나 共通必須科目은 經營學 專攻學生들에게는 최소한 이수시켜야 할 科目이라 보고 사소한 差異가 요구되는 것은 無視해 버리고 各各을 差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專攻選擇에 들어가 “ B - 1 ” 型에서는 회계학專攻등 7 個專攻을 내세워 앞에서 본바와 같이 專門機能分野의 素養과 知識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 각 專攻分野에서 이수해야 할 科目의 수도 會計學이 8 個科目 24 學點으로 으뜸거나 그 외는 大體로 5 個科目 15 學點정도로 限定할 것을 提議하고 있다.

< 表 2 - 1 > 目標別 經營者 教育課程의 模型

課程內容 / 教育目標	A. 一般經營者育成	B. 專門(實務)管理者 育成	
		B - 1. 機能別	B - 2. 産業別
教養 · 系列必須	19 ~ 33 學點 (平均 10 科目)		
共通專攻必須	10 ~ 11 (科目) × 3 (學點) = 30 ~ 33 (學點)		
專 攻	(20 學點以內로) 專攻 및 關聯系列의 選擇科目	- 生産管理專攻 - 마아케팅專攻 - 財務管理專攻 - 人事管理專攻 - 會計學專攻 - 國際經營管理(貿易) - 電算應用管理	- 銀行管理 - 中小企業管理 - 保險業管理 - 不動産業管理 - 호텔業管理 - 用役業管理 - 都 · 小賣業管理 - 非營利機關管理 - 公企業機關管理 (學校의 特色에 따라 變更가능)
選 擇	20 學點內外	10 ~ 30 學點內外	

註 : 1. 教養必須科目 40 學點정도를 基準로 본 것임.

2. 總履修學點을 140 點으로 간주하고 作成해 본 것임.

6 經營學研究

“B”型은 銀行經營, 保險專攻, 中小企業專攻 등 産業別로 專攻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본 것이나 各大學의 特殊性에 따라 한두가지 專攻을 두는 것을 있을 수 있으나 이를 全面的으로 全分野에 걸쳐 開設하는 것은 現在 이에 必要한 教授陣이 마련되지 못해 不可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現在の 科 學生定員으로는 이러한 方向으로 專攻을 設定할 경우 運營上의 困難을 경험할 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러한 可能性만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하겠다.

그러나 이미 몇몇 大學에서 보는 大學의 特殊性에 따른 專攻(科) 예를 들어 觀光經營學 科등은 그러한 試圖이 이미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試圖는 特히 地方大學에서는 中小企業經營專攻이라든가, 小賣業經營專攻 등이 또, 大都市의 大學에서는 銀行經營論, 保險業經營論 등이 試圖될 餘地가 있다고 본다.

<表 2-2>는 앞에서 본 課程表에서 系列基礎科目과 專攻必須科目으로 提案되고 있는 科目들과 그 學點을 나열해 본 것이다. 여기서 3~6 이라함은 大學의 方針에 따라 어떤 것은

<表 2-2> 教科課程 構成科目의 內容

<u>系列基礎科目</u>		<u>專攻必須科目</u>	
經濟學	3-6	財務會計	3-6
數學	3-6	管理會計	3
總計學	3-6	計量經營	3
經營情報處理	1-3	財務管理	3
法學	3-6	生産管理	3
社會學	3	經營學原論	3
心理學	3	(또는 經營管理, 企業과 社會)	
計	19-23	組織行爲(人的資源管理)	3
		마 아 케 팅	3
		國際經營學	3
		計	30-33

이미 教養必須科目으로 지정되고 있어 여기서 되풀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이를 伸縮性있게 정해 본 것이다. 다만, 여기 나열된 것을 經營學專攻學生이면 누구나 이러한 기초과목들을 이수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서 大部分의 大學이 이들 과목들은 經營學系列學生들에게 必須科目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學校에 따라서 이들 科

目中 社會學이나 心理學을 必須로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줄이나 經營學이 社會속의 조직문제이고 또 組織에서의 人間心理의 管理問題가 重要性을 지니게 됨에 따라 여기서 必須로 다루어질 것이 건의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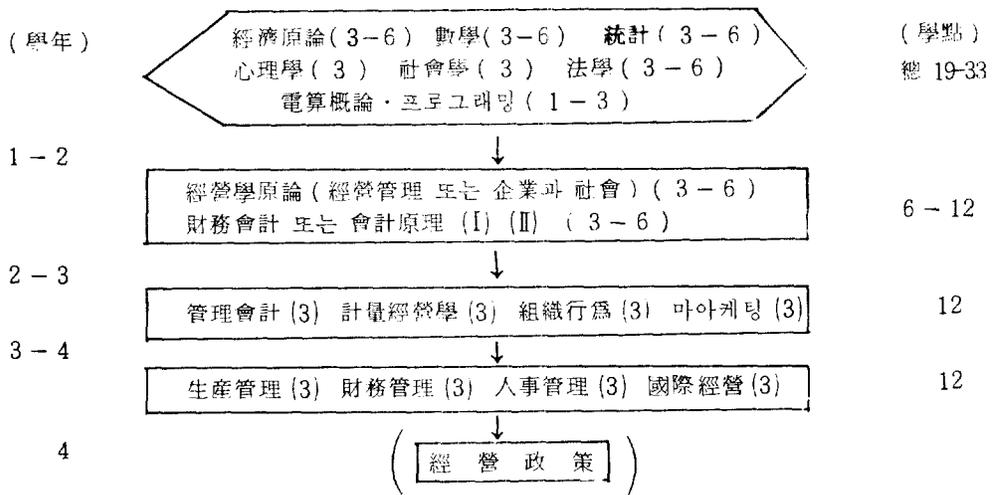
또한 專攻必須科目은 經營學의 專攻學生이 必須的으로 이수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 것을 논의끝에 선정하였는 바 이는 經營學의 學問的發展과 産業界의 必要를 감안해서 정해진 것이다. 여기서 特記되어야 할 것은 財務會計가 6學點이 필수이어야 하겠다는 점은 大體로 쉽게 의견의 一致를 보았으나 經營學原論에 대하여는 의견이 갈려서 各大學의 便宜에 따라 經營管理 또는 企業과 社會란 과목으로 代替할 수 있겠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의 一致를 보았다. 이는 經營學原論의 內容이 “企業과 社會的 환경 ” 分析이 큰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다른 主部分이 經營管理이므로 이를 차라리 나누어 가르침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附記해 둔다.

이들 科目中에서 또하나의 特色은 「組織行爲論」을 「人事管理」外에 必須로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의 經營에서 組織規模가 커지고 이에서의 人間行爲의 生態에 대한 이해를 經營學專攻學生들이 보다 充實히 하여야 함을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組織行爲論 대신에 組織理論(組織外形構造의 分類를 中心한 것이 아닌)을 必須로 할 수도 있겠으나 이 理論科目은 學部水準에서 授業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며 또 教授에 따라 教授內容에 큰 差가 있을 위험성이 있어 여기서는 이를 提示하지 아니 하였다.

다음의 <圖 2-1>은 앞의 系列基礎 및 專攻必須科目들이 어떤 과정 순서로 이수되어야

<圖 2-1>

提案된 基礎科目 履修課程의 模型



註: ◀ 教養必須, □ 專攻必須, (□) 專攻選擇

8 經營學研究

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본 것이다. 大體로 기초과목은 1~2學年에서 그리고 專攻必須科目은 大體로 2~3學年에서 이수케할 것이 提議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2~3學年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순서를 적어 보려한 것이다. 그리고 經營政策은 “A”型인 一般經營者育成目標을 지닌 경우는 필수적일 것으로 보나 B型에서 各專門分野를 이수하는 경우는 이것이 必須가 될 必要가 없다 함 것이다.

또한 “A”型에서 專攻必須科目들을 이수한 다음에는 <表 2-3>에서 羅列된 科目中에 專攻選擇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들 과목을 한 大學의 한科에서 다 開設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태두리에서 教授陣의 사정에 따라 開講하되 한 學生이 專攻選擇으로서 20學點以內로 택할 것을 권장하기로 本研究陣은 의견을 모았다. 왜냐하면 一般經營者로 育成할 것을 目標로 한 이상 보다 幅넓게 系列關聯科目 및 一般選擇科目을 택할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이다.

<表 2-3> 一般經營者育成目標下的 專攻選擇科目(A型)

會計學分野	- 財務會計原理	人事・組織管理分野	- 組織理論
	- 管理會計原理		- 勞使關係論
	- 會計理論(中級會計)	國際經營分野	- 多國籍企業論
	- 原價會計		- 國際財務論
	- 會計監査		- 國際마케팅
마케팅分野	- 消費者行爲論	其 他	- 企業家(中小企業)
	- 市場調査論		- 經營史
	- 마케팅管理論		- 企業과 社會
財務管理分野	- 金融制度論		- 經營情報시스템
	- 證券投資論		(MIS)
	- 財務分析		- 管理經濟學
生産・計量管理分野	- O R		- 經營學特講
	- 生産・在庫管理		- 韓國經營論
	(生産模型分析)		- 經營政策論
	- Simulation		

이에 反하여 “B-1”型的 教育을 위하여는 <表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專攻別로

<表 2-4> 專門管理者育成目標下의 專攻選擇科目(B型)

會計學分野	- 財務會計 I, II - 原價會計 I, II - 會計情報시스템 - 高級會計 - 稅務會計 - 會計監査	- 經營情報시스템 (MIS) - 電算應用模型 (Computer based Corporate level decision Model)
마케팅分野	- 消費者行爲論 - 市場調查論 - 廣告論 (販賣促進論) - 販賣管理 - 마케팅管理	生産管理分野 - 品質管理 - 在庫管理 - 工程管理 - 作業管理 - O.R
財務管理分野	- 證券投資論 - 財務分析 (經營分析) - 證券市場論 - 保險論 - 國際財務論 - 金融機關經營論	國際經營分野 - 國際金融論 - 國際마케팅論 - 多國籍企業論 (國際企業論) - 貿易概論 - 貿易外換實務
人事·組織管理分野	- 勞使關係論 - 賃金管理 - 職務管理 - 産業訓練論 - 勤勞相談論	計量經營管理分野 - O.R - 生産·在庫管理 - Simulation
電算應用管理分野	- Computer Programming - Simulation 用語 - Data Base System	其他 - 企業과 社會 - 經營情報시스템 - 管理經濟學 - 經營學特講 - 商法 - 民法 - 貿易英語 - P.E.R.T

10 經營學研究

최소 5개의 과목이 나열되고 있다. 그 중에서 會計學은 8個科目에 24學點이며, 大部分 15學點 5個科目씩으로 되어 있다. 이는 專攻이라해도 學部에서 系列基礎를 닦고, 專攻 必須科目을 이수했다면 各專攻에서 이런 5~6個 科目을 한 分野에서 이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3. 提案된 教科課程模型의 前提

이상에서提起된 教科課程의 編成模型들은 이것이 現實적으로 效果있는 教育課程이 되기 위하여는 각기 몇 가지씩의 前提가 充足될 것이 기대된다.

먼저 “A”型 教育目標에 따른 教育課程은 美國같은 大學院 課程에서나 이룩되는 目標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나라의 現實的 必要 즉, 우수한 人材가 經營大學에 進出하고 있는 現實로 보아 이를 部分的으로 一部大學의 學部에서 成취해 보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成功하기 위한 前提는 첫째는 教育目標가 그러하듯이 相對적으로 우수한 學生들이 모여 있는 大學에서 더 效果的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全般的인 分析方法 및 洞察力을 길러줄 수 있는 有能하고 圓熟한 教授陣이 多數 確保되고 있어야 보다 效果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學生數 對 教授數 比率이 相對적으로 낮아 教授의 學生 個人指導가 比較적으로 잘 되고 있을 때 效果的이라 본다. 그리고 넷째로, 學生들 중에서 大學院 특히 外國에 留學해서 經營學工夫를 계속하려는 學生의 比重이 높을 경우에 더욱 效果的인 教育方式이 될 것이라 한 것이다.

이에 反하여 “B-1”型 教育目標에 따른 教育課程은 그 前提가 첫째, 經營學科(大學)에 적어도 學年에 150名 이상의 學生定員이 있는 경우 특히 私立大學에서는 經營面에서 正當化 될 수 있는 方式이라 하겠다. 둘째는 專攻을 一時에 6~7個 開設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2~3個정도는 開設되어야 비로소 그러한 編制가 뜻을 지닌다 한 것이다. 셋째로, 專門分野別로 開設되는 課程에서 各科目을 擔當할 有能한 專門分野教授陣의 確保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專攻의 뜻이 살지 못하며 忠實한 授業이 못될 경우 一般經營者養成만도 못한 結果가 될 念慮가 있다.

요컨대 “B”型目標에 따른 經營教育은 大學에서 經營學教育이 經營大學의 編制下에서 獨自的인 교육을 할 수 있고 經營學의 테두리 안에서 各專攻分野의 工夫를 보다 깊이 있게 시키려는 努力이 集中될 수 있을 것이 前提가 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B-1”型的 提案에서 經營學科가 經濟科와 法科와 同一大學內에 귀속되고 있을 경우에는 實踐하기 어

려운 바라 함 것이다.

그리고 이 “B-1”型目標의 教育이 앞으로는 우리 나라에서의 經營學科卒業生의 수요에 適應한 教育方式이 될 것이라 보며 이는 産業에서의 專門化 必要性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大學에서 經營學教育體制의 轉換이 準備되어야 함 것이다.

물론, 各大學에서 會計學科 貿易學科가 따로 設置되고 있어 部分的이나 專門分野別教育이 行해되고 있다 함 것이나 이들 科가 經營學의 基礎가 되는 기본과목들에 대하여 輕視하고 있는 감이 있어 經營學의 基礎가 不充實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 본다. 이 점에서 本研究陣은 現在 우리나라 經營大學內에서 會計學科, 貿易學科를 따로 設置한 것은 아직 時期尙早가 아닌가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에 代身해서 經營學의 테두리 안에서 專攻分野로 나누어 이를 선택케하고 이 分野別 教育을 充實히 하는데 注力함이 적어도 80年代 前半의 우리의 여러 與件이 不充實함을 감안할 때 보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代身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專攻設置를 提議하기에 이른 것이다.

Ⅲ. 專攻別 教科目과 授業方針

1. 會計學 分野

學部에서 經營學을 專攻하는 學生들이 會計學을 專攻으로 택하여 專攻選擇으로 會計學科目중 무엇을 택하며 얼마나 택하여야 하는가의 解答은 앞에서 提示한 두가지의 經營學教育의 目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즉 會計擔當者가 될 것이냐 아니면 會計를 많이 利用하는 經營者가 될 것이냐에 따라 어떠한 會計學 教育을 받아야 되는지는 分明히 다른 것이다.

一般經營者育成模型에서는 會計擔當者 보다는 會計情報를 利用하는 면에서 教科過程이 提示되었다. 이미 共通專攻必須에서 會計學을 두과목 내지 세과목을 택하여 財務會計와 管理會計의 基礎를 가지고 있으므로 財務會計, 原價會計, 會計監事를 選擇토록 하여 會計에 대한 均衡적인 知識을 습득토록 設計되었다.

財務會計를 통하여 財務會計가 당면하고 있는 基本的인 弱점을 理解함과 동시에 社外의 投資者를 위시한 理解關係者들에게 會計가 어떻게 信賴할 수 있는 情報를 提供하느냐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12 經營學研究

우리나라의 企業會計規則과 國際會計基準등 財務會計의 基本的인 趨勢도 배우게 된다. 監査를 除外시킨 財務會計란 별로 信憑性이 없다. 그러므로 會計監査를 통하여 어떻게 會計가 企業의 理解關係者들에게 信憑性있는 財務情報를 提供하려고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한다. 原價會計는 管理會計原理에서 배운 것을 基礎로 하여 經營管理에 必要的 諸原價의 概念, 製品原價의 計算, 原價와 價格과의 關係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實務管理者인 會計擔當者를 育成하는 교과과정에서는 一般經營者育成模型에서와는 달리 會計에 關聯된 많은 科目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美國에서도 公認會計士가 되려면 대부분의 州가 최소 한도 30學點의 會計學을 履修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그러므로 公認會計士나 企業의 會計擔當者나 혹은 內部監査者가 되려면 共通專攻必須에서 배운 會計學의 基礎科目以外에 最小限<表 2-4>에 提示된 8科目은 敎科過程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一般經營者育成模型의 財務會計를 실무적인 立場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擴大시킨 科目들이 財務會計Ⅰ, 財務會計Ⅱ, 高級會計, 稅務會計라고 할 수 있겠다. 原價會計가 부연되어 原價會計Ⅰ, 原價會計Ⅱ, 會計情報시스템이 되었다. 이렇게 科目을 배열하여 講義要目を 作成하여 보면 서로 重複되는 점이 다소 있으나 이는 必要的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重要하기 때문에 重複이 될 수도 있고 高學年에서 나오는 科目에서는 좀 더 어려운 問題를 풀 수도 있다.

이 8科目以外에도 各 産業에 특유한 科目을 敎科過程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銀行會計, 保險會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國際會計, 非營利團體會計등 지금까지 別に 會計가 必要없는 것 처럼 느꼈던 分野가 우리의 經濟發展과 더불어 점점 더 必要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科目도 考慮해 볼 수 있다.

會計學科目들간의 重複事項을 앞에서 指摘하였는바 全體적으로 보면 다른 分野 특히 財務管理과 重複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例를들어 資本豫算에 관한 問題는 財務管理과 管理經濟에서 나오는데 管理會計와 原價會計에서도 取扱하게 된다. 이러한 重複은 必要的 것으로 본다. 즉 같은 題目이라도 보는 觀點에서 取扱하는 面이 다를 수도 있고 反復된다는 것은 바로 經營學 敎育에 重要的 題目임을 證明하는 것이므로 어느정도의 重複은 厭할 事로 본다. 다만 兩 分野의 敎授들이 서로 調整하여 財務管理에서는 資本費用을 強調하고 原價會計나 管理會計에서는 利潤性 檢討에 重點을 두면 될 것이다.

또한 會計學 科目을 듣기 위한 다른 分野의 先修科目은 없으므로 會計原理를 1學年부터 가르칠 수 있다. 또 會計原理가 다른 分野의 科目을 듣기 위한 先修科目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學年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다. 各 科目의 履修順序는 原理다음에 管理會計 그리고 財務會計, 原價會計, 會計情報시스템, 高級會計, 稅務會計 그리고 會計監査의 順序로 지도 될 수 있으나 高級學年科目間에 順序의 바꿈은 무방할 것이다.

2. 財務管理 分野

財務管理의 機能은 論者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投資決定과 資本調達決定이 主軸을 이루고, 여기에 財務計劃과 分析, 配當決定, 資産管理 등의 부수적인 機能들이 합하여 財務管理 機能을 형성해 주고 있다.

入門過程인 「財務管理」에 投資에 대한 基礎理論을 다루는 「證券投資論」과, 資本調達の 諸般問題를 다루는 科目을 선정하고 企業의 分析과 統制를 다루는 「財務分析」科目을 選定하여 財務管理分野를 闡明하도록 科目을 選定하였다.

一般經營者育成 教科過程(A型)에서는 基礎共通 必須科目으로 「財務管理」以外에, 專攻選擇으로 「證券投資論」(혹은 投資論)과 「金融制度論」(혹은 金融機關論)의 두 重要科目을 選定하였다. 우선 「財務管理」는 基礎共通必須科目으로서 財務管理分野의 入門科目이다. 이 科目에서는 資本豫算, 資本調達の 源泉, 資本코스트와 資本構造理論, 運轉資本管理, 財務分析·統制·計劃, 및 特殊財務問題등이 골고루 다루어져야 한다.

「證券投資論」은 共通必須科目인 「財務管理」의 資本豫算論(capital budgeting)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投資의 一般理論을 좀 더 상세히 다루는 目的以外에, 現代財務管理의 發展中 가장 획기적인 結果라고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管理 특히 資本資産의 價格決定 模型(CAPM: Capital - Asset Pricing Model)을 소개하는 2次的인 目的이 있다. 특히 CAPM은 最近의 財務管理體系를 이를 中心으로 再定立할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財務管理分野에서 매우 중요한 科目으로 「金融制度論」을 選定하였다. 이 科目은 國內에서 經營學教授나 學生에게 널리 알려진 科目은 아니나, 財務管理의 2大主軸機能의 하나인 資本調達機能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 金融·資本市場(money - capital market)의 구체적인 理解가 불가피하다는 點에서 이 科目의 重要性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위의 두 科目以外에 學生들의 受講을 強力하게 勸告하지는 못하지만, 「財務分析」을 財

14 經營學研究

務管理分野의 一科目으로 選定하였다. 이는 企業의 營業活動이나 財政狀態의 全般的인 分析과 統制라고 하는 點에서 이 科目選定の 的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專門管理者 育成 模型(B)에서도 共通必順科目으로서 「財務管理」, 專攻科目으로서 「證券投資論」과 「財務分析」을 選定한 的도는 이미 설명된 바와 같다. B型이 A型과 근본적으로 다른 點은 A型에서는「金融制度論」이라고 하는 科目을 通해 金融·資本市場의 理論과 組織構造를 綜合적으로 다룬데 比하여, B型에서는 이를 各市場別로 따로 開設하여 産業界의 發展에 따른 必要를 充足시키자고 하는데 있다.

專門管理者로서 「財務管理」와 「證券投資論」의 基礎的인 知識을 가지고, 金融仲介機關의 各市場을 專門적으로 연구함으로써, 商業銀行을 中心으로한 一般 金融市場(「金融機關經營論」), 證券市場(「證券市場論」), 및 保險市場(「保險論」)의 構造와 體系, 機能과 業務等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특히 企業의 資金調達市場과의 關聯을 강조한다. 이들 세 科目을 講義하는 教授가 留意하여야 할 點은 國際金融·資本市場과의 連繫性이다. 따라서 이들 세 科目에서는 金融·證券·保險의 國內市場의 範圍를 넘어 서서, 國際市場과의 關聯性을 가지고 學生들이 理解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財務管理分野의 先修科目은 會計原理와 經營統計가 기초로서 必要的인 科目이고 財務管理가 나머지 科目의 先修科目이 될 것이다. 단, 金融制度論은 經濟學을 이수한 후에 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組織·人事分野

經營學 教授要目中 組織·人事分野에서는 A型과 B型의 共通必順科目으로 「組織行爲論」과 「人事管理(人的資源管理)」을 選定하였다.

現代 組織이 人間中心의 經營을 표방해 나감에 따라 人間의 行爲에 대한 理解를 더욱 必要로 하게 되었고 目標指向的인 組織에서 行動科學으로부터 導出된 概念·理論·實證的인 研究結果를 適用하여 組織에서 個人行爲와 小集團行爲를 理解하고 豫測하고 判斷할 수 있는 能力을 培養하는 것이 要請된다. 이를 위하여 「組織行爲論」은 企業機能에 基礎的인 知識을 提供해 주는 原論的인 意義를 갖는다.

「組織行爲論」을 履修하고 나면 「人事管理」를 必須로 擇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組織은 그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的인 機能을 遂行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특히 人的資源을 대상으로 하여 管理하는 것이 바로 「人事管理」이기 때문이다.

組織·人事分野에서 A型和 B型の 共通專攻選擇科目으로는 「勞使關係論」을 選定하였다. 專攻科目인 「組織行爲論」에서 배운 質的 意思決定의 側面과 人間中心의 經營에 대한 一般概念과 理論, 그리고 「人事管理」에서 習得한 實際 組織에서 適用되는 管理技法을 基礎로 하여 「勞使關係論」을 배우게 된다.

「勞使關係論」을 개설함으로써 적어도 企業에서 勞使關係管理 專門家로서의 基本的인 素養이 쌓아지도록 教育目標을 두어야 할 것이다.

組織·人事分野 프로그램 A의 專攻選擇科目으로 「組織理論」을 提示하였다.

A型에서 「組織理論」의 開設이 권고된다. 즉 專攻科目인 「組織行爲論」만으로는 全般的인 組織論을 理解하는데 未洽하며 一般經營者로서의 資質을 높이기 위해서 「組織理論」이 開設되어야 할 것이다.

組織·人事分野중 B型的 選擇科目으로서는 앞에서 提示한 「勞使關係論」외에도 「賃金管理」, 「職務管理」, 「産業訓練論」, 「勤勞相談論」을 選定하였다.

産業化의 進展 趨勢와 企業의 專門領域別 擴大에 따라 勞使關係專門家, 賃金管理專門家, 職務管理專門家, 産業訓練專門家, 勤勞相談專門家の 登장은 必須不可缺하며 大學에서 이러한 專門家들의 育成輩出은 시급한 課題가 되고 있다. 「賃金管理」에서는 賃金에 관한 基本理論, 報酬의 諸形態, 報酬政策 등에 대하여 學習시키고, 「職務管理」에서는 人的資源의 效率의 管理를 위해서 職務의 性格을 理解시키고, 職務分析·職務評價·職務設計에 대한 知識과 技法을 숙지시키고 「産業訓練論」에서는 教育訓練의 基本原理, 教育訓練 프로그램, 實施方法, 評價方法 등에 대한 管理技法을 習得시키고, 「勤勞相談論」에서는 産業體에서 勤勞者들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點들을 理解하고 個人目標과 組織目標의 調和를 위한 理論의 바탕과 管理技法을 숙지시키는데 目的을 둔 것이다.

각 科目의 內容에 약간의 重複이 不可避하며 이는 先修 后修科目이 區別되는 과정에서 教授要目에서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人事·組織分野科目은 組織行爲論을 先修科目으로 할 것이 바람직하다.

4. 生産管理 分野

지난 20여년간 經營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發展은 計量的 接近方法을 導入하여 經營問題를 數學的으로 分析하고 이것에 입각하여 經營理論을 定立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趨勢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經營學分野중의 하나가 生産管理이다. 이는 生産管理에 속하는 經營問題들이 가장 計量化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며, 生産에 관련된 資料

들이 生産의 特殊性 때문에 이미 計量化되어 있거나 또는 生産資料를 수집하여 計量化하기가 가장 쉬웠기 때문이다. 또한 生産에 있어서 投入-産出關係를 模型化하기가 다른 經營部門보다 용이하고, 이에 따라 生産管理部門에서 보다 많은 模型들이 작성되었으며, 計量的 分析을 통하여 生産의 科學的 管理과 새로운 生産管理의 理論이 開發되었다.

1960年代 까지의 生産管理는 오늘날의 觀點에서 보면 工場爲主의 生産管理로서, 오늘날 韓國의 現實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즉 現在의 韓國經濟의 發展段階에서 生産現場의 能率, 生産性 提高, 品質管理, 原價節減 등은 企業의 成長을 위하여 決定的 要素로서 作用하고 있다. 따라서 大學의 生産管理에서는 後述하는 新式의 生産管理뿐만 아니라 産業化 初期 段階에서 공통적으로 必要한 作業管理 등을 教科課程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舊式의 生産管理를 美國의 大學에서는 그 명칭을 “PRODUCTION MANAGEMENT”(PM)라고 하여 오늘날의 生産管理인 “OPERATIONS MANAGEMENT”(OM)와 區分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60年 後半期부터 生産管理의 名稱이 美國에서는 PM에서 OM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이는 우리가 生産管理를 PM이라고 할 때 이는 어떤 특정한 財貨의 生産을 나타내고 無形의 財貨生産은 生産 概念에는 통속적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代 生産管理에서 다루고 있는 生産은 有形의 財貨와 無形의 財貨를 포함하며 研究의 焦點도 資源의 最適分配를 통한 生産시스템의 合理的 設計와 連營으로 經營目標를 성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學問內容의 變化를 나타내기 위하여 生産管理의 名稱도 前述한 바와 같이 PM에서 OM로 바꾸어졌던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PM와 OM와의 差異는 1960年代까지의 PM에서 초점을 둔 것이 生産工場에서의 能率이나 生産性の 提高이며 作業現場의 研究와 生産作業에서 가장 큰 역할을 擔當하고 있는 作業者의 作業方法의 改善이나 工程管理를 통하여 이룩되었다. 이때 주로 使用하던 分析技法이 圖解的 方法(Schematic method)이며 이의 代表的인 것으로 흐름工程圖를 들 수 있다.

그러나 1960年代부터 本格的으로 導入되기 시작한 OR의 概念과 計量分析技法은 生産管理分野의 一大 革新을 가져왔다. 이 새로운 計量的 分析方法의 活用으로 生産管理의 주요 관심사는 生産過程을 模型化하고 計量的 分析을 통하여 企業內 諸生産資源의 最適分配를 企業의 目標와 연결하여 分析하는 것이 되었다.

앞에서 말한 學問內容의 變化는 教科目的 構成에 있어서도 生産現場의 專門的 管理業務인 工程管理, 作業研究, 品質管理 等에서부터, 生産시스템의 設計 및 運用의 觀點에서 有·無形의 財貨를 生産-在庫分析하는 形態로 전환되었다. 또 이러한 전환은 基本的으로 計量 經營分析論의 意思決定概念을 중심으로 發生된 것이므로, 研究의 主내용도 生産시스템의 設計 및 運用에서 經營者가 어떻게 合理的 意思決定을 내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이다.

本 研究에서 生産管理의 教科果程을 作成하면서 生産管理의 主要內容은 OM을 중심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生産의 專門管理者를 양성하는 것을 目的으로 할 때는 PRODUCTION MANAGEMENT가 中心이 되었다. 아직 産業의 發展段階나 企業의 成長段階로 보아서 우리나라에서 OPERATIONS AND SYSTEMS ANALYSIS를 부격적으로 導入하기에는 이른다고 본다. 그러나 教育은 항상 未來 指向的이어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SA도 教育內容에 약간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本研究의 프로그램 A에서는 이와 같은 첫번째 企圖로 Simulation을 새로운 科目으로 提示하였다.

5. 마아케팅 分野

마아케팅을 가르치는 教授에 따라 마아케팅分野의 첫科目的 教授要目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¹⁾ 大學에서의 마아케팅教育의 多樣함을 볼때 共通必須科目으로서의 마아케팅 入門은 經營學의 테두리에서 즉 代表的인 製造企業의 한 活動分野로서의 마아케팅문제의 管理를 中心으로 展開될 수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企業 마아케팅活動의 對象이 되는 流通體制 및 流通主體, 그리고 마아케팅活動의 助成機關들(金融, 運輸, 保險 등)의 活動까지를 包含시킨 包括的인 內容을 담고 展開될 수 있을 것이다.

이 分野의 教科課程 開發을 擔當한 立場에서는 共通必須科目으로서의 마아케팅을 마아케팅 關聯事項 全般을 概觀하는 後者의 立場을 취해서 科目의 內容을 編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經營教育의 目標이 A형이든 B형이든 社會經濟 및 企業의 生態에 대한 기본 知識과 올바른 分析 觀點을 지녀야 한다고 보고, 또 보다 重點을 分析的素養을 培養하는데 둔다면, 이러한 廣範한 流通環境의 理解와 이 속에서 作用하고 있는 主體間的

1) 한국경영교육위원회, 前掲書, p. 123 參照.

關係, 환경의 영향등에 대한 理解와 分析이 보다 教育으로서 중시되어야 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러한 마케팅 分析入門을 기초로 앞에서 본 A型的 經營學教育에서는 選擇科目으로서 消費者行動論, 市場調查論, 마케팅管理論의 셋 정도를 開設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단순히 開設할 選擇科目을 나열해 본 것으로 大學의 事情에 따라 그 以上도 그 以下의 數도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점에서 여기 提示한 세 科目중 消費者行動論과 市場調查論은 마케팅分野의 研究에 있어서 基礎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重視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마케팅의 工夫가 消費者의 行態와 反應을 前提로 하고 있으며 또 市場을 이해하는 方法을 익히게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들 科目은 科學的方法和 科學的思考를 익히게 하는 것으로서도 그 價値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마케팅管理論을 내세워 놓은 것은 앞에서 共通必須科目인 入門科目의 特性이 환경과 流通體制에 焦點이 맞추어짐으로써 企業에서의 마케팅管理活動이 充分히 工夫되지 못하였을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

다음에 “B”型에서는 選擇科目으로서 앞서 본 세 과목 이외에 廣告論과 세일즈맨십 敎育, 販賣管理가 추가되고 있다. 이 두 課目은 學生들이 卒業後 마케팅業務를 직접 담당할 경우 必要한 知識이 中心이 된 것으로서 實務의인면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販賣促進論이란 과목보다는 廣告論이 보다 一般的이며 經營學科에서는 3分の2 이상이 이 과목을 開設하고 있다. 그러나 販賣促進이란 課目으로 廣告와 販賣管理課目を 統合시켜 가르치는 경우는 오히려 적다.

다른 分野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겠으나 마케팅分野에서도 入門格인 “마케팅”은 他마케팅科目에 앞서서 受講됨이 當然하며 이 과목이 이수된 다음에 消費者行爲論이나 市場調查論이 受講되도록 함이 순서라 하겠다. 그러나 이 두 後續科目을 특별히 어느 것을 먼저 擇하여야 한다고 規定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마케팅科目들이 흔히 經濟와 社會의 環境變化의 餘波에 영향을 받는 主題들을 內包하고 있으므로 經濟學, 心理學, 社會學등이 반드시 先修科目으로 受講되고 있을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과목의 기초위에서 “마케팅”分野에서의 學習이 이루어져야 全體的으로 均衡있는 學習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6. 國際經營學 分野

國際經營學 分野의 講義目標은 企業의 國際的 經營活動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시킴으로써 현대의 經營者가 갖추어야 할 國際的인 經營眼目を 涵養시켜 주는데 있다.

經營學 必須科目인 國際經營學을 이수하고 이 分野를 계속 공부할 학생들을 위하여 A型目標의 경우 國際企業論, 國際마케팅, 國際財務管理를, B型的 경우 國際企業論, 國際마케팅, 外換管理, 貿易論을 專攻選擇科目으로 선정하였다.

國際經營學 分野는 企業의 國際的 經營活動을 研究對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經營活動이 이루어지고 있는 諸 國際經營環境에 대한 分析 및 이에 따른 企業의 國際經營戰略에 대한 研究, 그리고 이러한 國際經營活動의 주역인 國際企業 또는 多國籍企業에 대한 研究로 크게 大別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共通必須科目인 國際經營學에서는 주로 國際經營環境分析과 이에 따른 經營戰略을 공부한 후에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國際企業論을 選擇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A型, B型 구별없이 專攻選擇科目으로 國際企業論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하나의 과목으로 統合하여 강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國際經營學科目에 포함되어야 할 國際經營環境分析도 국제경쟁환경고유의 복잡성과 이질성으로 인하여 이를 나누어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國際經營學分野는 生産管理, 마케팅, 財務管理, 會計 또는 情報管理 등 機能管理領域別로 볼 때 國際生産管理, 國際마케팅, 國際財務管理, 國際會計學, 國際人事管理和 같은 과목들로 세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海外直接投資 形態로 海外에 진출한 기업은 드물고 따라서 國際生産管理, 人事管理 또는 會計問題 보다는 財貨와 用役의 國際的 去來와 國際金融 등 財務管理問題가 훨씬 더 빈번하고 중요하므로 A型的 경우 國際마케팅과 國際財務管理의 두 과목만을 專攻選擇科目으로 선정하였다. B型에서는 실무적 의사결정 능력의 涵養이라는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으므로 A型的 國際財務管理科目은 企業의 換危險管理和 이에 수반되는 換率豫測業務, 外換操作業務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外換管理라는 科目으로 대치하였다.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國際貿易慣習의 比較分析에서 시작하여 貿易契約締結에 필요한 절차와 契約締結에 따른 당사자들의 法律關係를 검토하고, 契約履行에 필요한 輸出入實務와 이를 뒷받침하는 運送, 保險, 金融, 代金決濟 등의 제기구와 수단을 연구함으로써 國際貿易의 다양한 주제를 實務的 側面에서 綜合的으로 이해시킬 수 있도록 B型에는 貿易論을 專攻選擇科目으로 추가하였다.

7. 計量經營學 分野

經營學을 專攻하고자 하는 모든 學生들에게 賦課하는 計量分野의 必須科目으로서는 一般的으로 經營情報處理論과 計量經營學을 들 수 있다. 現代의 複雜한 企業環境下에서는 管理的 意思決定을 위해 計量的 接近方法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바 이러한 趨勢는 컴퓨터技術의 開發에 의하여 앞으로 繼續될 展望이며 計量的 接近方法에 바탕을 둔 分野를 공부하기 위하여서는 컴퓨터에 대한 基本知識이 必要하다. 따라서 최소한 經營情報處理論은 저학년에서 履修시킬 必要가 있다.

經營情報處理論은 컴퓨터를 企業經營에 利用하는데 있어 必要한 言語 및 手段을 取扱한다. 또 計量經營學은 企業의 意思決定問題에 科學的 方法을 適用하는 分野로서 주로 수리적 모델을 使用하게 된다. 規模가 큰 모델의 解를 구하기 위하여는 必然的으로 컴퓨터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計量經營學은 經營情報處理論을 履修한 다음에 배우는 것이 妥當하다.

A型 目的의 學生들에게 計量生産分野 選擇科目으로서 ㉠ Operations Research (O.R) ㉡ 生産·재고관리 (생산모형분석) ㉢ 컴퓨터 시뮬레이션등을 履修시켜 좀 더 廣範圍하고 깊은 知識을 習得케 할 必要가 있다.

O.R은 性格上 計量經營學 (Management Science)와 同一하나 後者は 經營學徒에게 經營意思決定問題에 諸般 技法을 應用하여 解答을 구하는 技術을 習得시키는데 강조를 두는 반면에 前者는 이들 技法의 유도, 證明等 기법 자체에 강조를 두는 傾向이 있기 때문에 깊이 研究할 수 있게 된다. 生産·在庫管理는 生産管理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分野로서 生産管理에서 깊이 다룰 수 없기 때문에 別途로 開設할 必要가 있다.

시뮬레이션은 선형계획, 在庫管理等 分析的 (analytical) 解決節次에 의해서는 풀 수 없는 複雜한 問題에 좋은 解決策을 提供하는 技法으로서 오늘날 計量的 問題解決技法中에서 널리 使用되고 있다.

一般的으로 시뮬레이션은 時間의 경과에 따른 동태적 시스템을 研究하는 分野로서 특히, 재고, 대기행렬, 스케줄링, 그리고 豫測等에 利用되고 있다.

이 分野科目들의 內容으로 볼 때 저학년에서 컴퓨터에 관한 基礎知識을 배운 뒤에 計量經營學을 배우고 그 다음에 生産管理를 履修토록 하는 것이 妥當하다. 일단 專攻必須科目을 履修한 後에 택하는 選擇科目들은 그 先後를 지킬 必要性이 比較的 약하므로 學生 自己의 欲에 依해 選擇할 수 있겠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이 分野에서는 많은 課題物의 提供이 必要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에 의해 問題를 解決토록 하기 때문에 教授의 채접을 돕는 조교문제가 解決되어야 하겠다.

8. 電算應用經營管理 分野

오늘날 컴퓨터는 컴퓨터革命이라고 할 정도로 高度의 技術的 開發을 가져와 科學, 工學, 醫學, 經營 등 다방면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企業經營에 미친 影響은 至大하다고 할 수 있는 바, 組織體를 管理하는데 있어서 오랫동안 依存해 왔던 技術(art)에서 科學(science)으로 그 方向을 轉換시키고 있는 데에 決定的 役割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컴퓨터의 企業經營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하므로 先進工業國家에서는 經營學을 공부하는 學生들에게 컴퓨터에 관한 科目들을 必須로 履修시키는 傾向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近來 一部 企業體에서 컴퓨터를 導入 利用하고 있는 한편 많은 大學에서 가장 基礎的인 經營情報處理論이나 컴퓨터言語인 FORTRAN이나 COBOL을 가르치는 현상을 發見할 때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電算應用 分野를 專攻하여 專門管理者가 되고자 하는 學生은 結局 企業體 또는 다른 機關에 就職하여 基本的인 資料處理業務는 勿論 나아가서 高級管理者들이 要求하는 情報를 제대로 提供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科目들과 履修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 ㉠ 프로그래밍언어
- ㉡ 시뮬레이션언어와 應用
- ㉢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 ㉣ 電算應用模型
- ㉤ MIS

저급학년에서 經營情報處理論과 計算經營學을 必須科目으로 先修하였기 때문에 본 과정에서는 一般目的을 띤 言語로서 FORTRAN과 COBOL을 동시에 배우는 프로그래밍言語를 맨 먼저 履修토록 한다. 특히 COBOL은 추후에 履修하게 될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의 基本的 言語가 되기 때문에 徹底하게 배울 必要가 있다.

다음 “시뮬레이션言語와 應用”에서는 現代 企業經營에 있어서 시뮬레이션應用的 重要性를 認識시키고 여러가지 시뮬레이션言語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GPSS, SIMSCRIPT, DYNAMO 중 하나를 택해 그 言語를 배우고 同時에 이를 대기행렬, 在庫統制, 豫測,

企業의 財務構造 시뮬레이션 등에 利用하므로 시뮬레이션言語가 어떻게 經營問題에 利用되는지를 實際로 演習시킬 必要가 있다.

MIS의 가장 핵심적인 分野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의 運用이다. MIS는 광대한 資料를 取扱하기 위하여 巨大한 貯藏施設을 必要로 하므로 資料를 貯藏하고 빼내는 作業을 쉽고 效果的으로 하기 위해서는 Software 시스템이 重要하며 이를 데이터 베이스 管理시스템이라 한다. 따라서 取扱하는 內容으로 보아서 이 科目은 經營情報處理論보다 高級科目이라 하겠다.

電算應用模型은 科目의 性格上 教授要目作成에 있어서 統一性を 기할 수 없는 科目이다. 다시 말하면 擔當하는 教授의 재량에 따라서 取扱하는 內容이 다를 수 있는데 本科目은 會計財務, 生産, 販賣등 企業體의 諸機能을 위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利用되고 있는가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Ⅳ. 建 議

이상의 研究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라 몇가지 文教當局과 各大學當局에 다음과 같은 建議을 하고자 한다.

① 教育目標의 定立

우리나라 大學에서의 經營教育이 뚜렷한 教育目標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目標를 어떻게 定立하느냐 하는 것은 各 大學의 特性과 教育方針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나 결코 非現實的인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學生의 全般의 能力을 감안한 目標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教授陣의 早速한 確保

이상에서 言及된 教育目標를 充實히 實現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教授陣의 絶대수가 不足하며 이런 상태에서 目標設定 自體가 의미를 상실할 危險性마저 있는 것이다.

③ 新進教授陣의 教育 및 研究能力開發

不足한 教授陣을 확보한다는 것이 결국 研究나 教授經歷이 不足하거나 資格이 不足한 教授陣으로 補充하게 될 危險性이 있는바 이런 事態를 克服하기 위한 學界의 研究세미나의 開催 및 交流가 活潑히 이루어질 것이 冀望된다.

④ 現行 經營系 學科編制의 再評價

現在 經營系學科로서는 經營學科, 會計學科, 貿易學科가 있고 例外的으로 觀光經營學科, 産業心理學科 등이 經營大學에 所屬되고 있는바 이들 科를 現行대로 獨立시키는 것 보다 經營大學으로 統合시켜 專攻別로 나누거나 上級學年에서 專攻科目들을 이수케함이 現段階로서는 經營學의 體系的 知識을 吸收케 하고 學問의 實用性を 높이는 조치가 된다고 본다.

⑤ 漸進的 專攻分野의 擴大

各 大學의 教授陣이 不足한 現實에서 專門(實務) 管理者 育成目的을 세웠다 해도 이를 教授陣이 確保되는데 따라 점차 擴大해 나가도록함이 기대된다. 專攻을 만들어 놓고 教授陣을 確保하려는 從來의 方式이 各 大學에서 止揚되어야 할 것이며 各大學의 事情에 따라 教授陣이 確保된 分野부터 專攻을 開設할 것이 기대된다.

⑥ 專攻分野 制定에 대한 文敎部規定의 伸縮的 運營

이상과 같은 專攻이나 教育目標의 定立에 따른 教科過程의 制定에 있어 文敎部가 劃一的이고 規制的인 立場을 벗어나서 大學이 自律的 發展을 도모하고 또 伸縮的으로 運營할 수 있도록하는 餘地를 부여하여야 한다. 文敎部로서는 資格있는 教授陣의 확보를 감독하고 어떤 教育이 이루어지느냐를 보다 철저히 감독하고 어떤 專攻分野를 또 科를 統廢合하느냐 하는데 관하여는 干涉을 피함이 기대된다.

⑦ 教育資料센터의 設置

經營教育의 改善을 위한 共同努力의 하나로서 經營系 教育資料, 事例, 外國刊行物 및 이의 번역 등을 한 곳에서 (예를 들어 經營教育委員會 事務局) 管理해서 全國大學의 요청에 따라 수집, 처리, 배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건의하며 이것이 教育의 質向上에 크게 寄與할 것이라 믿는다. (예로서 美國 하바드大學校에 부설되어 있는 Case Clearing House 를 들 수 있다)